

## 골프 중계 시청률은 '타이거 우즈'에 달렸다

우즈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부활해 끝까지 우승 경쟁을 벌인 제147회 디 오픈 챔피언십(7월 19일 - 7월 20일, 우승상금 189만 불)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계권을 가진 NBC는 24일 오후 디 오픈 최종라운드의 미국 내 시청률이 5%를 찍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시청자 수는 37%나 늘었다. 시청률 5%는 우즈가 우승한 2000년과 2006년 디 오픈 때와 같은 기록이다. 우즈가 1타 차 선두로 나섰다 11번 홀(파4) 더블보기로 내려앉기 전까지 순간 시청률은 6.74%까지 치솟았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3·미국)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분명하다. 우즈가 출전한 대회에는 수많은 갤러리가 구름처럼 몰려든다. 그가 최종라운드에서 우승을 다룬다면 시청률은 최고점을 찍는다.

'타이거 우즈 효과'는 올해 이미 수차례 증명됐다. 우즈가 부상 공백을 깨고 출전한 지난 1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3·4라운드 시청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58%, 38% 증가했다. 우즈가 공동 2위를 차지한 발스와 챔피언십(3월)은 2014년 PGA 챔피언십 이후 마스터스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 시청률인 4.4%(시청자 수 690만 명)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나 오른 수치다. 우즈가 공동 5위를 차지한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3월)의 시청자 수 역시 그가 출전하지 못한 지난해 대회보다 136%나 증가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즈에 열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미국 야후스포츠의 제이 버스비는 24일 갈럼을 통해 팬들이 왜 이토록 타이거 우즈에 열광하는지, '타이거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보라."며 "조던 스피스와 저스틴 토머스가 누구인지, 더스틴 존슨이



▲ 지난 제147회 디 오픈 챔피언십에 출전한 타이거 우즈의 경기 모습을 수많은 갤러리들이 지켜보고 있다.

디 오픈에서 컷 탈락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지만 타이거 우즈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처럼 TV 앞에 앉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파머 이후 우즈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선수는 없다. 우즈 덕분에 골프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면서 "우즈가 대회 마지막 날 입고 나오는 검정색 바지와 붉은색 티셔츠는 예전의 추억으로 기억을 소환하는 일, 즉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즈는 천하무적이었다. 1999~2009년 우즈는 그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79승 중 64승을 따냈고, 메이저 14승 중 13승을 거뒀다. 우즈가 나오는 대회의 시청률은 급상승했고 이는 골프용품사와 골프장의 매출, 대회 후원수입과 상금 증가로 이어졌다. 경쟁자들은 우즈 때문에 우승 기회를 놓치긴 했어도 '골프계 전체를 위해 돈을 버는 타이거 우즈' 덕분에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한편 우즈는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최종 공동 6위를 기록했으며, 프란체스코 몰리나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우즈는 지난 22일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직전 주보다 21계단 상승한 50위에 올랐다.

## 르브론 제임스 등번호 영구 결번시킨 팀은?

최근 LA 레이커스로 이적한 르브론 제임스의 등번호 23번이 영구 결번된다. 그런데 영구 결번시킨 팀은 레이커스도, 그렇다고 그가 뛰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도 아니다. 재미있게도 르브론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 시킨 것은 클리블랜드의 마이너 리그 야구팀이다.

지난 25일 농구 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산하 더블-A 애크런 러버덕스는 지난 23일, 르브론의 영구 결번식을 치렀다. 애크런 러버덕스의 연고지 오하이오주 애크런은 르브론의 고향이다.

러버덕스의 단장 짐 판더는 행사에 앞서 "르브론은 농구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가 보여준 고향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그를 '전설'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여러 세대의 팬들이 그를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의 등번호를 경기장 벽에 걸어 두겠다."고 말했다.

르브론의 고향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재단을 설립하고 애크런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4180만 달러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애크런에 최신 교육 시설을 갖춘 공립 학교 'I PROMISE 학교' 설립했다. 7월 30일 문을 연 이 학교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교육 외에 멘토링, 방과 후 학교,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을 마치고 애크런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이 학교의 슬로건은 "주어진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쟁취해야 한다(Nothing is given, everything is earned)."이다.

# 용자는 용자 전문가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크레딧 교정**  
Bankruptcy, Tax Litn. Judgement  
Collection, Late Payment  
Student Loan, Child Suport

- 개개인의 조건에 맞추어 용자 플랜을 해드립니다
- 커미션은 100% 후불 (크레딧 교정은 제외)
- 베드크레딧? / NO 크레딧?  
단기간 교정을 통해서 99% 용자가 가능
- Cash Loan / Line of Credit / Credit Card
- 지난 3년간 Tax 보고 (3만불 정도)하신분 50만불 용자 가능
- 사업체 Tax 보고하신분

크레딧교정을 통하여  
**99% 용자가 가능!!**

\*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

**IBC Financial. INC. 714-586-6677**